
자유시장의 시대:

2012년 코스타리카의 사회 갈등과 저항

알레한드로 알바라도 알카사르, 글로리아나 마르티네스 산체스

알레한드로 알바라도 알카사르는 코스타리카 대학 사회과학부 사회연구소 연구원이자 라틴아메리카 사회관측 연구소(OSAL) 코스타리카위원회 책임위원이며, 글로리아나 마르티네스 산체스는 코스타리카 대학 사회과학부 사회연구소 연구원, 라틴아메리카 사회관측연구소 코스타리카위원회 연구원이다.

1. 들어가며

2012년 한 해 동안 코스타리카에 나타난 사회적 갈등은 신자유주의 프로젝트의 의제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경제적·환경적·제도적 영향으로 나타난 결과다. 미국과 중미·도미니카공화국 자유무역협정(CAFTA-DR)이 2007년에 발효되면서 사회적 분극화와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불러왔는데, 이 협정은 코스타리카 정치사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국가적으로 신자유주의 프로젝트가 어느 때보다도 고도로 공고화되는 시기였고, 다른 한편에는 정치사회 단체의 연대와 저항이 있었던 시기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 전개된 사회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1940년대 만들어진 '사회보장법'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약탈을 통한 축적 공간의 확장, 보수적 종교주의자들의 도덕과 윤리의 정치 개입, 그리고 공

동체의 권리와 자유 앞에 자유무역과 경쟁이라는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폭력의 강화 등을 근간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모델의 공고화 과정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 이해된다(Sagot 2012, 77).

2. 축적 모델의 변화와 사회저항: 새로운 경제 모델을 둘러싼 논쟁

코스타리카는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처럼 1980년대에 신자유주의에 기반하여 새로운 경제 모델로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바르가스¹⁾의 주장처럼 신자유주의 전략으로 코스타리카의 경제와 사회는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수출 다양화와 주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관광 수입은 증가했으나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은 오히려 심화되었다(Vargas 2011, 89).²⁾

로블레스(Robles 2011, 107)는 코스타리카의 경우 신자유주의 정책이 추동되는 과정에서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약탈당하면서도 축적된 것은³⁾ 구조조정과 자

1) 1980~1982년 경제위기의 원인은 1, 2차 산업에 대한 보호주의 정책으로 시장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서 국가의 역할이 왜곡되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이 변화의 과정에서 비능률적인 경제는 인플레이션과 함께 경기 후퇴로 이어지게 된다(Vargas 2011, 86).

2) 유엔의 제18차 지속가능한 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코스타리카 국민은 정치 제도에 대한 지지가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56%의 국민만이 코스타리카의 민주주의와 정치 제도를 지지했는데, 이는 1978년 첫 조사를 실시한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인 것이다(2012:256). 이러한 현상은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사이의 견제가 강하고, 국가가 집합적 행위자나 사회적 저항에 대해 억압하는 경향을 보이며, 국민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 능력의 심대한 부족 등 국가의 총체적 무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3) '약탈을 통한 축적'(acumulación por desposesión)은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의 개념으로, 신자유주의 성격의 칠레 쿠데타(1973년) 이후 사적 자본이 공공재에서 이윤을 추구했다는 의미다. 하비에 따르면 "국가 소유의 공공재를 시장 기능에 맡기는 것으로써, 사적 자본이 공공재에 투자하고, 공공재를 투기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다"(Robles 2011, 106).

유무역이라고 본다.⁴⁾ 먼저 국내외 경제 자본 권력의 이익을 위하여 정치·사법·경제적 구조조정에 역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미완성으로 끝나게 되었는데, 경제의 초국적화도 달성하지 못했고,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도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⁵⁾ 이러한 상황은 양자 혹은 다자간 무역협정에 기반한 2차 구조조정을 유발했는데, 이 과정에서 약탈을 통한 축적의 장이 더욱 확장되었다. 보험, 통신, 금융, 그리고 생물다양성과 같은 자원으로의 확장이 그 예다. 이렇게 이 지역의 경제 권력 그룹들은 경제적·정치적·법적 2차 구조조정 과정을 통해 확장되었다(Robles 2011, 106). 2000년에 시작된 이와 같은 자유무역의 두 번째 시기는 코스타리카전력공사 민영화 계획(Combo ICE)에 대한 사회적 저항의 시기와 축을 같이한다. 이 한 해 동안 미겔 앙헬 로드리게스 정부의 이와 같은 전기 통신 분야 민영화 움직임에 반대하는 숭한 시위가 있었다. 이러한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중앙아메리카, 도미니카공화국, 그리고 미국이 참여하는 CAFTA-DR⁶⁾이 체결되었고, 2007년에 국회 비준과 함께 효력이 발효되면서 자유무역은 정점으로 치달았다. 정치사회단체의 격렬한 저항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권력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였을 뿐만 아니라 ‘공포의 전략’⁷⁾을 펼치며 그들의 이익을 추구한다. 결국 그해 10월 실시된

4) 특정 국가에서 나타난 신자유주의의 시간적 차이는 바르가스(Vargas 2011) 참고.

5) 자유시장 메커니즘의 공공 정책처럼 재구조화의 과정은 국가의 역할을 재규정하고, 수입과 외국 자본의 개방 정도에 따라 세계 자본 시장과의 관계적 속성이 변화하면서 유럽, 미국과 같은 제3의 시장과 직면함에 따라 중미와 국내 시장의 역할은 바뀌게 된다(Vargas 2011, 86).

6) 모라(Mora 2005, 283)는 미국이 중미 국가에 외국인 직접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투자법을 완전 자유화하는 것을 강요했다고 지적한다.

7) 공포 전략은 케빈 카사스(Kevin Casas) 부통령과 자유국민당의 페르난도 산체스(Fernando Sánchez)가 구상한 것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정부의 전략을 뜻한다. 코스타리카 대학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처음 발표되었으며, 코스타리카 국민들 사이에 퍼져 있는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되었다.

국민투표를 통과함으로써 코스타리카 정부는 CAFTA-DR 체결에 성공한다.

3. 자유무역, 약탈을 통한 축적, 공기업에 관한 논쟁의 시기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최근 5년간 격렬한 사회적 저항이 나타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앞서 언급한 약탈을 통한 축적을 둘러싼 논쟁이 두드러졌다. 작금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근 10여 년 사이 코스타리카에 발생한 사회적 저항에 대한 정의와 포괄적인 의미, 그리고 그러한 저항이 발생하게 된 상황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약탈을 통한 축적 과정과 관련한 논쟁의 중심에는 주요한 집단행위자로서 노동조합과 사회단체가 있다. 195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구축된 공적 제도성 보호가 수많은 집단행동에 기반한 사회적 저항의 핵심이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리몬(Limón) 항과 모인(Moín) 항 민영화에 반대하는 ‘대서양 연안 경제 개발과 항만 관리 위원회’ 노조의 저항이다. 대서양 연안 경제 개발과 항만 관리 위원회 노조는 2008년부터 오스칼 아리아스 정부(2006~2010), 라우라 친치야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리몬 항과 모인 항(두 항구는 코스타리카 수출입의 80%를 담당한다) 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며 국내 사회단체 그리고 다양한 노동조합과 연대투쟁하고 있다. 이 계획은 여러 번 백지화되기도 했으나 결국은 새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을 승인하고, 항구의 터미널 운영에 초국적 기업(APM Terminals)의 진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Alvarado et al. 2012b, 212)⁸⁾.

2012년 항만관리청이 네덜란드 투자회사에 컨테이너 적재와 하역 작업의

8) 탄압과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알바라도의 글을 참고할 것(Alvarado et al. 2010a, 2010b, 2012b, 2012c).

60%를 넘기는 것을 승인해주자 노조 집행부는 항구의 주요 기능이 독점자본의 수중에 넘어갔다고 비난했고, 이는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 노조가 일주일 파업을 선언했지만 공권력이 투입되면서 파업은 실패했다.

같은 시기 사회적 저항의 중심에 놓여 있던 다른 공기업을 살펴보면 코스타리카의 통신과 전력을 담당하는 기관인 코스타리카전력공사(ICE: Costarricense de Electricidad)가 있다. 이미 앞서 지적했듯이 민영화는 자유무역의 특징 중 하나로, 약탈을 통한 축적의 공간을 서비스 분야로 확장하려는 성격을 보인다. 실제로 코스타리카 경제에서 전력 분야는 국가, 지역, 초국적 자본으로부터 강력한 개방 압력을 받고 있었다.

전력과 통신 분야는 이미 오래전부터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는데, 특히 전력 분야의 구조조정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무엇보다도 2사분기에는 코스타리카 의회가 민간 기업의 전력 생산 진출이 용이하도록 전력공사 구조조정 입법을 시도 하자,⁹⁾ 코스타리카전력공사 노조(4개의 농촌 지역 전력회사를 포함하는)가 격렬하게 반대하였다(Alvarado et al. 2012c, 5).¹⁰⁾

같은 맥락에서 코스타리카 연금보험공사(CCSS: Caja Costarricense de Seguro Social)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기업 가운데 하나인데, 2011년 금융위기로 의료 보장의 내용과 규모를 축소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Alvarado et al. 2012a, 5~10). 이듬해인 2012년에는 주요 사회단체가 수많은 집단행동에 참여했는데, 주된 이유는 공공 의료기관이 의료 서비스를 축소하였기 때문이다. 이로써 사회

9) 코스타리카 의회는 전력분담법(제18903법안), 전력 관련 공기업 강화와 현대화 법안 및 전력에 관한 일반 법(제17496법안)을 상정했다.

10) 2012년 7월 레네 카스트로(René Castro) 환경에너지통신부 장관, 테오필로 데 라 토레(Teófilo de la Torre) 코스타리카 전력공사 사장, 클라우디오 볼리오(Claudio Volio) 전기발전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 기업인협회의 주요 인사 오찬 모임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레네 카스트로 장관에게 전력 분야의 개혁이 어느 분야보다도 시급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Alvarado et al. 2012c, 5).

전반에 사회보장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2012년 11월에는 어느 때보다 강력한 사회적 저항이 발생했다. 이 시기의 저항운동은 사회보장제도 수호를 위한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노동조합, 사회단체, 학생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까지 가세해 시위를 벌였으나 공권력의 탄압 또한 막강하였다. 결국 수도 산호세의 중심에 있는 연금보험공사 건물 앞에서 벌인 시위를 마지막으로 이 저항운동은 종료되었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과 병·의원 관련 예산 삭감을 반대하던 시위대를 경찰이 해산하는 과정에서 총 36명이 체포되고, 시민행동당(PAC: Partido Accion Ciudadana) 소속 국회의원 두 명을 포함하여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미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코스타리카 연금보험공사의 사례처럼 보건의료 부문의 사회 갈등은 새 경제 모델의 공고화 과정 중 가장 격렬한 저항으로 분출되었다.

다른 국가처럼 국가 엘리트는 과거 발전 모델의 시기에는 공기업에서 이익을 챙겨왔고,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신자유주의 모델과 민영화 논리를 이용하여 초국적 기업과 연합하고 공기업을 허약하게 함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한다 (Alvarado et al. 2012a, 8).

4. 재정위기, 부패, 권력 갈등

공공재인 공기업에 관한 갈등으로 사회적 긴장감이 팽팽한 가운데 2008년부터 경제위기가 시작되었고, 재정위기로 라우라 친치야 정부가 공공지출 삭감을 통한 긴축 경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가적 논쟁으로 발전하였다.

이처럼 2012년에는 공무원의 부패, 그중에서도 고위 공무원의 부패를 고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사건을 고발하고 법의 심판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이 있었다. 일례로 1사분기 재정위기에 직면한 라우라 친치야 정부가 세수 확대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논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5,000만 콜론¹¹⁾에 달하는 거금을 유용한 혐의로 페르난도 에레로 재무장관이 고발당했다. 또한 코스타리카 일간지 『나시오』의 폭로에 따르면, 프란시스코 비야로보스 국세청장은 2008년 회계연도에 소득세 180만 콜론을 탈루했다.¹²⁾

몇 달 후에는 페르난도 에레로 전 재무장관과 그의 부인이자 대통령실 자문위원이던 플로리사벨 로드리게스가 설립한 회사 프로세스소에 레오나르도 가르니에르 교육부 장관과 루이스 리베르만 제2부통령이 불법적으로 편의를 제공했다고 항의하는 노동조합과 사회단체의 시위가 이어졌다. 교육부 장관과 제2부통령은 프로세스소가 1,800만 콜론 규모의 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코스타리카 석유정제회사 앞으로 추천장을 써주었다.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해당 공직자의 파면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공무원 윤리강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발표했을 뿐이며, 정부는 직위를 유지시켰다(Alvarado et al. 2012c, 16).

마지막으로 2012년 11월에 코스타리카 역사상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는데, 의회가 페르난도 크루스¹³⁾의 대법관 임명을 거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해방당(PLN: Partido Liberacion Nacional)의 한 계파의 의원들은 다른 계파의 의원들과 함께 사법부의 권력 남용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고 정당화했다. 이

11) 콜론(Colón): 코스타리카 화폐 단위 — 옴긴이.

12) 이 문제로 두 공무원은 결국 사퇴하였다.

13)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인 페르난도 크루스는 CAFTA-DR이나 노천 광산 개발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한 상황은 삼부의 권력이 공공연한 대결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사회 각 부문과 사법부 공무원의 시위를 야기했는데, 특히 사법부 공무원은 크루스의 대법관 임명 거부를 사법권 독립의 침해와 간섭 행위로 규정하였다(Alvarado et al. 2012d, 8).

5. 신자유주의, 폭력, 권리

전 지구적으로 이미 규정되고 정립된 시민권의 가치, 행동, 형식이 존재하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는 태생적으로 구조적 폭력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피에르 부르디외(Bourdieu 1998), 파블로 다발로스(Davalos 2010, 2011), 보아벤투라 데 소우사 산토스(De Sousa Santos 2009)가 이미 지적한 대로 신자유주의 경제 사회 시스템은 국가의 물리적 억압, 경제적 약탈과 배제라는 폭력을 통해서 기능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소외된 사회 그룹은 신자유주의 경제와 사회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 행위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다.

앞서 지적했듯이 페미니즘 단체와 성적 다양성 관련 단체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경제 모델과 억압적인 종교의 보수성은 갈수록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Sagot 2012).

이처럼 신자유주의 사회는 ‘민주 질서’가 확립되었음에도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된 행위자를 인정하는 다양한 규범적·문화적·사회적 공간의 제한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고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시장경제가 우세한 경제 모델과 민주주의 사이에는 모순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는 강도 높은 폭력과 새로운 방식의 억압, 개인주의, 그리고 종교적 근본주의와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

넌다(Sagot 2012, 79).

이처럼 2012년에는 인권 탄압과 같은 억압적인 국가 정책과 행위의 정도가 강해지면서 사회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시민 세력의 조직화와 저항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6. 성 권리, 임신(재생산)권리 그리고 성 다양성 인정

2012년에는 성 권리, 임신(재생산)과 관련된 여러 갈등이 있었는데, 특히 2001년부터 시작된 국제적 요구, 즉 체외수정 시술 금지에 불복하여 미주인권재판소에 제소하고 판결을 기다리는 사건이 열일곱 건이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수 세력의 다양한 저항운동이 일어났는데, 누가 봐도 복음주의 기독교와 가톨릭교회의 개입이 분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체외수정에 관한 사안이 페미니즘 단체와 성 다양성 관련 단체의 주요한 의제로 떠올랐다(Alvarado et al. 2012c).¹⁴⁾

이러한 갈등과 함께 성 소수자의 재산권과 시민권 인정을 위한 집단행동이 진행되었다. 그 일환으로 공존사회법¹⁵⁾이라고 부르는 법안을 국회 인권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다양한 모임과 집회, 공청회를 열어 국회의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의회 규정에 따라 연례적인 상임위원회 개편이 있었고,

14) 12월 미주인권재판소는 코스타리카에서 금지하고 있는 체외수정과 관련하여 이러한 법안이 인권을 침해한다며 원고 측 부부의 소송 내용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확정 판결을 선고했다.

15) 이 법안은 동성애자의 동거(결혼)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주기 위한 것으로서, 배우자로서 법적 지위 인정과 이를 통해 이성 결혼과 동등한 재산권과 시민권적 지위에 대한 보장을 담고 있다.

극단적 보수당인 코스타리카 혁신당(PRC: Partido Renovación Costarricense) 소속의 복음주의자 후스토 오로스코가 국회 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상황이 어렵게 되었다.¹⁶⁾

사회단체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오로스코가 인권위원장으로 선출된 지 한 주도 지나지 않아 공존사회법 법안이 인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본회의 상정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처럼 2012년에는 다양한 범주의 보수주의자들이 긴밀하게 공조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성 다양성 권리와 성과 임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단체들의 연대가 강화된 시기이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존 패권 사회가 비정상적으로 규정하던 다른 성(*otras sexualidades*)의 존재에 대한 공론의 장이 열렸다(Alvarado et al., 2012c, 17).

7. 표현의 자유와 교육권

약탈을 통한 축적 모델의 강화와 약한 정부를 목적으로 법률 개혁을 진행 중에 있는 국가에서는 인권과 같은 기본권 수호는 포기해야 할 것 같다.

‘지적재산권 준수와 관련한 소송법’, 이른바 ‘복사법’으로 알려진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출판사, 출판 관련 기업인 모임에서 주장하는 지적재산권은 학생을 포함하여 학계가 주장하는 교육 권리 보호와 충돌을 일으켰다.

일명 ‘복사법’은 교육자가 수업 시간에 교재로 활용하는 한에서 시청각 자료,

16) 당시의 상황은 보이지 않는 운동이라고 불리던 진보단체, 성적 소수자, 여성단체가 연대하는 새로운 장이 형성되었다.

출판물, 녹음 자료 등의 복사를 허용하고 있는데, 출판계와 코스타리카 출판위원회 소속 작가들은 이 법안이 CAFTA-DR 발효로 더욱 강화되고 또 보호받아야 할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¹⁷⁾ 나이가 라우라 친치야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학생과 복사가게 운영자는 이 법안의 폐기를 막기 위하여 학문을 위한 복사운동을 구성하고, 교육 및 학문 접근의 자유에 관한 보호를 위해 저항운동을 지속했다(Alvarado et al. 2012d, 4).

그러나 친치야 대통령이 거대 출판기업인의 모임에 자주 참석하면서 결국엔 이 법안을 거부하였다. 그러자 학문을 위한 복사운동을 벌여온 학생위원회는 지속적인 저항운동을 전개하며 국회의원들에게 이 법안의 국회 재상정을 요구하였다.¹⁸⁾ 이에 대통령은 이러한 갈등을 종식시킬 목적으로 수업 교재 복사에 한하여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대통령령을 공포하게 된다.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 보호와 관련된 갈등도 발생했는데, 정보범죄법을 개정하자 사회단체와 미디어는 이 법안을 ‘재갈법’이라 명명하였다.

이러한 논란은 2012년 7월 국회가 정보범죄법의 288조 ‘스파이 활동’을 개정하면서 시작되었는데,¹⁹⁾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대중매체와 시민사회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그리고 공공 정보 접근에 대한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안 폐

17) 정보통신기술위원회, 코스타리카 지적재산권 전문가협회, 코스타리카 - 북미무역협회 등 다수의 출판 경영인 단체가 이 법안에 반대했다.

18) “의회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공포하기 위해서는 의회 제적 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행정부의 견제와 상관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Alvarado et al. 2012e, 3).

19) 288조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범죄 조직이나 마약 전쟁에 영향을 주거나 대외 관계 혹은 국방 및 안보 혹은 국가 경찰 조직, 정치적 기밀 등에 부당하게 연관되었을 경우 4~8년에 해당하는 징역에 처한다”(Molina 2012, 1).

기를 요구했다.²⁰⁾

정보범죄법의 개정과 공포에 대한 염려는 이미 시민사회에 만연해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많은 사회적 저항이 일어났고, ‘재갈법’이 주요 의제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8. 토지, 농업, 원주민 자치를 위한 투쟁

최근 코스타리카 농업 부문의 문제는 약탈을 통한 축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더욱 불거졌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소외되어온 농민과 원주민 생산자들은 오늘날 토지, 물, 종자, 기술 등과 같은 기본적 생산 요소의 약탈로 인해서 더 심각하게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년 동안 정부가 농민이나 원주민 생산자와 같은 소외 계층보다는 공업 부문과 초국적 기업의 생산에 집중하면서 코스타리카 농촌 지역의 분쟁은 더욱 첨예해졌다(Quesada et al. 2011, 1).

생산 자원의 집중과 초국적화, 그리고 농민이나 원주민 거주지 토지에 대한 압박이 증가하면서 수많은 저항이 야기되었다. 2012년 코스타리카 전역에서 다양한 토지 점거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 대지주(개인, 기업 혹은 국가)는 즉각적으로 행정적 혹은 사법적 퇴거 명령을 내렸고,²¹⁾ 이 과정에서 경찰과 공권력은 강도 높은 폭력을 행사하였다(Chacón 2013, 7).

20) 다양한 인권단체, 매스미디어, 학생단체, 그중에서도 코스타리카 언론인협회는 이 법안과 관련하여 압력을 가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호르헤 블란코 국립대학학생연합 회장은 이 법이 코스타리카의 민주주의 질서를 약화시키는 하나의 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Alvarado et al. 2012d, 9).

21) 실제 퇴거 명령 과정에서 토지 점유자의 경작지와 목장을 황폐화하고, 농업용수를 오염시켰으며, 가족을 포함해 주민의 재산을 모두 소각하는 일이 일어났다.

생산 자원의 민영화 혹은 초국적화와 관련하여 발생한 갈등 사례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세미야 델 토로피코와 델타파인 랜드(초국적 기업 몬산토의 자회사)가 구아나카스테 지역에 네 종류의 유전자 조작 옥수수 씨앗을 파종하기 위해 국립 위생서비스국 산하 생물보안기술위원회(Comisión Técnica Nacional de Bioseguridad)에 허가를 신청하면서 발생한 농민단체와 환경단체의 저항을 들 수 있다.²²⁾

토지 투쟁과 관련하여서는 신자유주의적 탄압과 토지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11년 5월부터 약 250가구가 알라후엘라 주 로스 칠레스 지역, 메디오 케소 마을에 위치한 나랑할레스 올란데세스(Naranjales Holandeses)²³⁾ 농장 425헥타르를 점유하였는데, 이러한 갈등은 주민들이 국가 기관인 농촌발전청으로 하여금 농장을 매입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그 토지를 분배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총 일곱 번에 걸쳐 해당 농장을 점유한 사건이다(Alvarado, et al. 2012f, 13).²⁴⁾

이듬해인 2012년에는 폰타레나스 주의²⁵⁾ 부에노스아이레스 칸톤에 위치한 카바그라, 살리트레, 보루카의 원주민 거주지와 알라후엘라 주의 구아투소 칸톤에 위치한 말레후 원주민 거주지에서 조직화를 통한 토지 회복이 두드러졌다.²⁶⁾

22) 이 시기 국립생물보안기술위원회에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압력을 넣는 집단행동이 있었으며, 구아나카스테(Guanacaste)에서 시작된 '우리 옥수수 수호' 행군은 수도 산호세까지 이어졌다.

23) 네덜란드 자본의 투자로 만들어진 농장이다 — 옮긴이.

24) 메디오 케소 지역공동체의 토지 분쟁 과정에서는 시위 참여 농민과 가족에 대한 폭력이 행사되었으며, 그 결과 농민들은 총기에 의해 부상을 당하기도 했고, 수십 명이 체포되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25) 코스타리카의 행정구역은 주(provincia), 칸톤(canton), 디스트리(distrito)로 나뉘며, 총 7개의 주와 81개의 칸톤이 있다 — 옮긴이.

26) 1977년 제정된 코스타리카 원주민법 제2조는 원주민 거주지의 토지에 대해 실제 거주하는 공동체에 소유권이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국가 소유 혹은 개인 소유와의 구분을 명확히 하면서 '공동소유지'로 구분 짓고 있다.

원주민 토지 회복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 중 하나는 이들의 조직 과정에 생물종 다양성, 문화, 주민자치에 대한 보호가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코스타리카 원주민법이 비원주민은 원주민 거주지의 토지를 소유할 수 없음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기업, 대지주, 목장주, 그리고 비원주민 농민들이 원주민 거주지 내에 대규모 농장을 소유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주민 거주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원주민의 토지 회복을 차별과 인종적인 차원으로 단정하였고, 정부도 이들과 같은 입장이었기 때문에²⁷⁾ 원주민에 대한 가혹한 폭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9. 마치는 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2012년 코스타리카에서 발생한 사회적 저항을 최근 수십 년간 진행된 경제 모델 변화 과정과 연결 짓지 않고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신자유주의화 과정에서 경제적·정치적·사회적·문화적 문제와 관련된 복잡한 논쟁이 일어나고, 새로운 사회적 긴장 국면이 조성되면서 집단 행위자들이 움직였다.

자유무역이라는 환경 속에서 진행된, 이른바 규제 개혁은 약탈을 통한 축적의 새로운 공간 확대를 야기했고, 이는 곧 사회적·정치적 저항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CAFTA-DR이 체결된 지 5년이 지나면서 이에 따른 결과들이 코스타리카 내에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고, 여기에 2008년 이후부터 이어지던 세계적

27) 정부에 의한 폭력은 살리트레 원주민 거주지 사례에서 선명히 드러나는데, 토지 회복 계획 과정에서 세브로르, 푸엔테 데 살리트레, 리오 아술 세 지역에서 농장 점거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공동체 지도부와 농장 점거에 참여한 원주민 가족에게 강도 높은 수준의 물리적 폭력이 가해졌다.

경제위기의 시나리오들이 코스타리카 경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코스타리카 사회 저항의 기폭제가 되었다.

요약하면 2012년 코스타리카의 사회 저항은 새로운 경제 모델의 등장과 과거 모델의 파괴라는 순차적 틀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회적·정치적 행위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신자유주의적 전략과 의제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현하였던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과거 성적 소수자, 농민, 원주민, 여성 등 사회적 소외계층이 전개한 투쟁이 이제는 각종 권리의 인정과 패권 문화 모델의 변화를 요구하며 모든 형태 배제와 차별에 반대하는 투쟁이 되었으며, 다른 행위자들이 등장함으로써 사회적 투쟁의 장이 훨씬 복잡해지고 확장되었다.

— 임수진 옮김

원제와 출처

Alejandro Alvarado Alcázar y Gloriana Martínez Sánchez. 2012.
"En el tiempo del libre mercado. Conflictos y protesta social en Costa Rica durante el año 2012."

OSAL 33, 111~122.

참고문헌

- Alvarado, Alejandro y Sindy Mora. 2010a. “Costa Rica. Informe de coyuntura. Enero a Diciembre de 2009.” *OSAL*. Buenos Aires: CLACSO.
- Alvarado, Alejandro, Mercedes Alvarez y Mora Sindy. 2010b. “Costa Rica. Informe de coyuntura. Enero a abril de 2010.” *OSAL*. Buenos Aires: CLACSO.
- Alvarado, Alejandro y Mercedes Alvarez. 2012a. “Costa Rica. Informe de coyuntura. Enero a diciembre de 2011.” *OSAL*. Buenos Aires: CLACSO.
- Alvarado, Alejandro, Mercedes Alvarez y Mora Sindy. 2012b. “Puertos, autoritarismos y resistencias: el conflicto por la concesión de los puertos de Limón.” *Reflexiones* (San José), Número especial de las Jornadas de Investigación Interdisciplinaria en Ciencias Sociales, pp. 211~222.
- Alvarado, Alejandro, Gloriana Martínez y Ana Lucía Gutiérrez. 2012c. “Costa Rica. Informe de coyuntura. Mayo a agosto de 2012.” *OSAL*. Buenos Aires: CLACSO.
- Alvarado, Alejandro, Gloriana Martínez y Ana Lucía Gutiérrez. 2012d. “Costa Rica. Cronología del conflicto social. Noviembre de 2012.” *OSAL*. Buenos Aires: CLACSO.
- Alvarado, Alejandro, Gloriana Martínez y Ana Lucía Gutiérrez. 2012e. “Costa Rica. Cronología del conflicto social. Octubre de 2012.” *OSAL*. Buenos Aires: CLACSO.
- Alvarado, Alejandro, Gloriana Martínez y Ana Lucía Gutiérrez. 2012f. “Costa Rica. Informe de coyuntura. Enero a abril de 2012.” *OSAL*. Buenos Aires: CLACSO.
- Bourdieu, Pierre. 1998. “La esencia del neoliberalismo.”
http://www.pedagogica.edu.co/storage/rce/articulos/rce35_11contro.pdf
- Cajiao, María Virginia. 2002. “Derechos de los pueblos indígenas costarricenses sobre sus recursos naturales.” *Revista Ambientico* 102.
- Chacón, Vinicio. 2013. “Aumenta presión y violencia por la tenencia de la tierra.” *Semanario Universidad* 1972: 16~22.
- Dávalos, Pablo. 2010. *La democracia disciplinaria: el proyecto posneoliberal para América Latina*. Quito: CODEU-PUCE.
- Dávalos, Pablo. 2011. “Hacia un nuevo modelo de dominación política: Violencia y poder en el posneoliberalismo.” *Agencia Latinoamericana de Información*(ALAI).
- De Sousa Santos, Boaventura. 2009. *Sociología jurídica crítica. Para un nuevo sentido común en el Derecho*. Madrid: Trotta.

- Estado de la Nación. 2012. “XIII Informe Estado de la Nación en Desarrollo Humano Sostenible.” San José: Estado de la Nación.
- Molina, Xinia. 2012. “Delitos informáticos y el espionaje político.” *Campus* 233.
http://www.una.ac.cr/campus/ediciones/2012/agosto/2012agosto_pag23b.html
- Mora, Henry. 2005. “Los Acuerdos de Inversión en los Tratados de Libre Comercio: de vuelta al AMI. El caso del TLC entre Estados Unidos y los países de Centroamérica.” En Jaima Estay, comp. *La economía mundial y América Latina. Tendencias, problemas y desafíos*, Buenos Aires: CLACSO.
- Muñiz, Elsa. 2011. “Los puntos conflictivos en la relación entre los Estados y las políticas sexuales.” En S. Corrêa y R. Parker, comps. *Sexualidade e política na América Latina: histórias, interseções e paradoxos*. Rio de Janeiro: ABLA.
- Quesada, Jorge, Gloriana Martínez, y María Paula Morales. 2011. “La organización campesina en Costa Rica: un recuento histórico.” *La jornada del campo* 42.
- Robles, Francisco. 2011. “Los de entonces ya no son los mismos. Acumulación por desposesión en la última década en El Salvador y Costa Rica.” *Anuario de Estudios Centroamericanos* 37: 105~137.
- Sagot, Montserrat. 2012. “¿Un paso adelante y dos atrás? La tortuosa marcha del movimiento feminista en la era del neointegrismo y del «fascismo social» en Centroamérica.” en Magdalena Valdivieso, et al. comps. *Feminismo y cambio social en América Latina y el Caribe*. Buenos Aires: CLACSO. 75~100.
- Vargas, Luis Paulino. 2011. “Costa Rica: Tercera fase de la estrategia neoliberal. Contradicciones y desafíos (2005-2010).” *Rupturas* 1(1): 84~107.